

## <소설 심사평>

임철우, 김형중, 한 강

올해 5.18문학상 소설 부문 응모작은 총 105편이었다. 편수로는 예년에 비해 소폭 증가한 편이었다. 전체적인 경향 중 특기할 만한 것은 우선 5.18을 직접 소재로 다룬 작품들이 현저히 줄었다는 점이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80년 5월로부터 35년의 세월이 지났고, 따라서 5.18의 '사건성'이 많이 희박해졌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우려할 만한 일이었다. 그러나 달리 생각하면 지난 35년 동안 진행된 우리 사회의 변화를 고려할 때 '오월 정신'이 단순히 독재에 대한 항거만이 아니라 현재의 다양하고 첨예한 사회 문제들로까지 확장되고 연결되는 것이 당연하다 싶기도 했다. 고무적인 일이었다.

작품의 질은 고르지 않았다. 80년 5월의 기억을 직접 다룬 작품들 중에는 관습적이고 경직된 작품들이 많았다. 젊은 응모자들의 것으로 보이는 작품들에서 이런 경향이 도드라졌는데, 아마도 체험보다 지식, 실감보다 당위로부터 작품의 동력을 얻어온 탓이 커 보였다. 반면 더 많은 수의 작품들이 '오월 문학'으로서의 변별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기도 했는데, 노동, 인권, 평화, 차별 등 우리 사회의 제반 문제들에 대한 사유가 충분치 않은 작품들에 대해 후한 점수를 주기는 힘들었다. 심지어 5.18문학상을 포함해 다른 지면에 이미 투고한 적이 있는 작품들도 적지 않게 눈에 띄었다.

심사위원들의 다소 까다로운 눈을 통과해서 본심에 오른 작품은 다섯 편이었다. <거인과 북극곰>, <낙지>, <골목>, <아무도 없는 곳에>, <택배> 가 그 작품들이었다. <거인과 북극곰>은 상대적으로 젊은 응모자의 작품으로 읽혔다. 신선하고 상황 설정이 흥미로웠으나 전체적으로 소품이었다. 작품을 통해 제기하려는 문제가 소소했고 구성상의 작위성이 눈에 띄었다. <낙지>의 입담은 아주 리얼하고 구체적이었다. 낙지처럼 질긴 생명력을 가진 여성 캐릭터도 실감났다. 그러나 분량이 꽤 긴 만큼 구성이 중요했는데, 전체적으로 산만하다는 느낌을 지우기 힘들었다. <골목>은 본심에 오른 작품들 중 가장 세련된 작품이었다. 환상을 문학적 장치로 차용한 기교가 특별히 높지 않았다. 그러나 철거촌 문제, 빈곤의 문제, 주인공과 아버지간 갈등 문제 등이 유기적으로 어울리지 못했고, 무엇보다도 넓은 범주의 오월문학에 속할 만한 주제의식이 미미했다.

결국 <아무도 없는 곳에>와 <택배> 사이에서 심사위원들은 오랜 시간 고심했다. 두 작품 모두 문장과 구성이 안정되어 있었다. 오래 기억에 남을 강렬한 이미지나 장면들을 품고 있었고, 오월 문학다운 주제의식도 있었다. 그러나 두 작품 공히 다소 관습적이고 전통적인 형식을 취하고 있

다는 불만은 남았다. 당선작 없는 가작 두 편을 고려하기도 했으나 최종적으로 수상의 영예는 <아무도 없는 곳에>에 주어졌다. 수상작으로 정해 놓고 다시 읽어보니, 체험이 녹아 있어 진솔하고, 오랜 습작으로 다듬어진 문장력도 나무랄 데가 없는 작품이다. 무엇보다도 80년 오월의 기억에 사로잡힌 두 노인 캐릭터의 비극성이 끝내 잊혀지지 않아 오월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절감하게 하는 작품이다.

당선자에게는 축하를 나머지 응모자들에게는 위로의 말을 전한다.